

대학생의 한방의료에 대한 인식 정도 조사

이정원 · 김경철*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진단학교실

Abstract

Survey of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 Degree of Korean Medical Care

Jeong-Won Lee · Gyeong-Cheol Kim*

Department of Diagnost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Eui University

Objectives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grasp and provide basic data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of korean healthcare policies in future.

Methods

A questionnaire developed by the author was distributed to 299 students of D University located in Busan and collected thereafter from March 5 to June 1, 2012. Statistical processing of the data obtained was conducted using the SPSS WIN IBM 20.0 program to indicate outcomes in frequencies and percentages.

Results

The results of the survey are as follows.

1. The number of students who were mainly using korean hospitals/clinics was 6(2.0%).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selecting korean medical institutions was 'medical technology'. 2. The treatment that was received the most frequently and the most reliable at korean medical institutions was acupuncture. The most frequent reason for taking korean medicine was 'prescriptions tailored to constitutions' and the most frequent reason for avoiding korean medicine was 'high prices'. 3. There was few number of students who knew that car insurance coverage for traffic accidents include treatment at korean clinics. and who knew about 'permitted standard herbal medicine', 'the use of disposable needles', 'wild ginseng pharmacopuncture'. 4. Among items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medicine, 'treatment technology with fast and high effects' was the most frequently selected.

Conclusions

University students' preference for and perception of korean medicine were shown to be very low. It is considered that public relations should be reinforced to implant correct perception of korean medicine in university students who will be major users of hospitals and clinics.

Key Words

korean medicine, preference, university student, questionnaire

* 교신저자 : 김경철 / 소속 :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진단학교실

TEL : 051-850-8649 / E-mail : kimkc@deu.ac.kr

투고일 : 2012년7월19일; 수정일 : 2012년8월14일; 게재확정일 : 2012년8월20일

I. 서론

각국의 의료체계는 서구 의료체계를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어느 국가에서나 자체의 전통의료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 효용성이 자국 국민들에게 인식되어 있다¹⁾. 이런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보건복지가족부는 한의학 표준화사업으로 제1차한의학육성발전계획(2006~2010)에 한방전문의 교육과정 표준화, 한방표준진료지침 작성, 한방표준 의료행위 개발, WHO 전통의학 표준화사업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아 시행하고 있으며 대부분 임상연구와 제품화연구를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²⁾.

이처럼 한의학의 위상이 높아지고 국가적 지원은 늘어나고 있지만, 의료시장의 경쟁은 심화되고, 의료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면서³⁻⁵⁾ 한방 병의원의 경영 상황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한방의료기관 수가 단기간에 타 의료기관에 비해 많이 늘어난데 비해, 공단 지급 한방 병원 요양급여 점유율은 2010년, 2011년 두해 연속 3.9%에 불과한 실정이다⁶⁾. 비급여항목인 한약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는 없지만, 건강기능식품등이 시장점유율이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볼 때⁷⁾ 한방 비급여 항목 점유율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한방병의원과 한의 치료에 대한 국민적 인식수준과 욕구를 파악하는 것은 한의 치료 저변을 확대시키는 데 있어 가장 기초적인 일일 것이다.

2011년 연령별 건강보험 진료실적을 보면 20대가 222,798,817원으로 전연령대 건강보험 진료실적 6,447,373,101원의 3.5%에 해당하여 전체 병의원에 있어서 주환자층으로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노인환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한방의료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20대 대학생은 현재 한방의료기관에 있어서는 주환자층은 아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적용 인구 중 20대가 차지하는 인구는 6,772,641명으로서 전연령대 적용인구인 49,299,165명의 7.3%에 해당한

다⁸⁾. 또한 향후 몇 년 안에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20대 대학생의 특성상 이후 병의원의 주 서비스 이용자가 될 대상이다.

향후 한방의료기관의 점유율의 상승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한방의료 선호 연령대인 노년층은 물론, 한방의료 비선호 연령대인 20대의 한방치료에 대한 인식과 욕구 조사가 더욱 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조사는 대학생들의 한의학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앞으로의 한방 보건 의료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소재 D대학교 대학생의 한방의료 및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진행하였다.

II.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D대학교에 재학중인 일반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방의료 및 한방의료 기관에 대한 인식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표적모집단은 2012년 3월에서 6월 현재 부산광역시에 재학중인 대학생이다. 근접모집단은 부산광역시 D대학교에 일반전공 대학생으로 9개 단과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299명으로 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문헌고찰과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 중 본인의 연구목적에 맞는 내용을 참고하여 자체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설문내

용은 일반적 특성 8문항,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일반적 인식 4문항, 한방의료기관 이용현황 1문항, 한방의료 치료기술에 대한 인식 7문항, 한방의료 특성 정보 6문항, 한방의료 발전 방안에 대한 견해 1문항으로 총 27문항의 자기기입식 설문지로 구성하였다. 설문지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한의학 전공교수 1인, 의료경영학 교수 1인의 자문을 받아 수정 보완하였다.

4. 자료수집

자료수집 기관은 2012년 3월 5일부터 6월 1일까지였고 자료수집방법은 연구자가 학생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설문내용을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 하였다. 회수한 설문지 320부 중 분석에 불충분한 21부를 제외한 299(93.4%)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5. 자료분석방법

자료분석은 SPSS WIN IBM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한방의료 및 한방의료 기관에 대한 인식정도는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학년은 3학년이 124명(51.5%)으로 가장 높았고, 2학년이 88명(29.4%), 1학년이 65명(21.7%), 4학년이 22명(7.4%)순이었다. 성별은 남자 119명(39.8%), 여자 179명(60.2%)이었다.

전공계열은 상경대 학생이 88명(29.4%), 의료보건대 학생 81명(27.1%) 자연과학대 학생 60명

Table 1. Distribution of Grade, Sex, Major Department, Condition of Health N=299

Variables		n	(%)
grade	1	65	21.7
	2	88	29.4
	3	124	51.5
	4	22	7.4
sex	male	119	39.8
	female	179	60.2
major department	Humanities, Statutory	16	5.3
	business and Economics	88	29.4
	natural sciences	60	20.1
	Medical health	81	27.1
	Technology, Life Science	17	5.7
	Athletic	37	12.4
condition of health	very healthy	42	14.0
	healthy	209	69.9
	unhealthy	46	15.4
	very unhealthy	2	0.7

(20.1%) 체육과학대 학생 37명(12.4%) 공과대 학생 10명(3.3%), 인문대 학생 9명(3.0%), 법정대 학생 7명(2.3%), 생활과학대 학생 5명(1.7%), 영상정보대 학생 2명(0.7%) 순이었다.

본인의 건강수준은 건강한편이 209명(69.9%) 약간 불건강이 46명(15.4%), 매우건강이 42명(14.0%), 매우 불건강이 2명(0.7%) 순이었다. 가족 유형은 핵가족이 261명(87.3%)으로 가장 높았고, 혼자거주자 10명(3.3%), 대가족이 28명(9.4%)으로 나타났다.

2. 한방 의료기관에 대한 일반적 인식

연구대상자의 한방의료기관 일반적인 인식정도는 <Table 2>과 같다. 몸이 아픈 경우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양방 병·의원이 234명(78.3%)으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약국 58명(19.4%), 한방 병·의원 6명(2.0%) 보건소(지소) 1명(0.3%)순이었다.

‘한방의료기관을 선택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한의사의 의료기술’이 136명(39.0%), ‘한방 병의원의 인지도’가 61명(20.5%), ‘위치와 소요거리’는 37명(12.4%), ‘주의의 권유’ 34명(11.4%), ‘치료비용’ 10명(3.4%), ‘원장과 직원의 친절도’ 8명

(2.7%), 그외 기타가 32명(10.7%)이었다.

‘진료만족정도’는 보통이 188명(62.8%), 조금 만족이 80명(26.8%), 조금불만족이 15명(5.0%), 매우만족이 13명(4.3%), 매우 불만족은 3명(1.0)순이었다.

‘한방의료기관 진료 시 불만족 이유’는 ‘높은가격’이 97명(32.5%), ‘진단의 정밀성 부족’이 79명(26.4%), ‘치료 효과의 부족’ 47명(15.7%), ‘환자에 대한 불친절’ 7명(2.3%), ‘불결한 위생’ 5명(1.7%), 기타 사항이 64명(21.4%)이었다.

3. 한방 의료기관의 이용 현황

연구대상자의 한방의료기관 이용 현황은 <Table 3>과 같다.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한 횟수’는 ‘보약’의 경우 없다가 236명(79.0%), 1-3회는 48명(16.1%), 4-6회는 11명(3.7%), 6-9회는 1명(0.3%), 10회 이상은 3명(1.0%) 순이었다. ‘피부미용’의 경우 없다가 252명(84.3%), 1-3회는 35명(11.7%), 4-6회는 5명(1.7%), 10회 이상은 4명(1.3%), 6-9회는 3명(1.0%)순이었다. ‘소화질환’의 경우 없다가 240명(80.2%), 1-3회는 45명(15.1%), 4-6회는 8명

Table 2. General Perception Degree about korean Medical Instiution N=299

Variables		n (%)	Variables		n (%)
medical institution primarily visited at	pharmacy	58 19.4	satisfaction degree	very satisfied	13 4.3
	western clinic	234 78.3		a little satisfied	80 26.8
	korean clinic	6 2.0		commonness	188 62.8
	public health center	1 0.3		a little dissatisfied	15 5.0
important factor for choosing korean medical clinic.	doctor's medical skill	136 39.0	reason of dissatisfaction	very dissatisfied	3 1.0
	clinic's name recognition	61 20.5		inaccurate diagnosis	79 26.4
	location, distance	37 12.4		lower treatment effect	47 15.7
	price	10 3.4		unkindness	7 2.3
	people's recommend	34 11.4		filthy hygiene	5 1.7
	kindness degree	8 2.7		high price	97 32.5
	etc.	32 10.7		etc.	64 21.4

Table 3. The Present Condition of Visiting to Korean Medical Institution N=299

Variables		n (%)		Variables		n (%)	
restorative	0	236	79.0	cardiovascular system	0	277	92.9
	1-3	48	16.1		1-3	19	6.4
	4-6	11	3.7		4-6	1	0.3
	6-9	1	0.3		6-9		
	10-	3	1.0		10-	1	0.3
aesthetic	0	252	84.3	respiratory system	0	247	82.6
	1-3	35	11.7		1-3	35	11.7
	4-6	5	1.7		4-6	7	2.3
	6-9	3	1.0		6-9	7	2.3
	10-	4	1.3		10-	3	1.0
gastrointestinal system	0	240	80.2	constitution	0	268	89.6
	1-3	45	15.1		1-3	27	9.0
	4-6	8	2.7		4-6	3	1.0
	6-9	3	1.0		6-9	1	0.3
	10-	3	1.0		10-		
musculoskeletal system	0	254	84.9	etc.	0	283	94.6
	1-3	32	10.7		1-3	12	4.0
	4-6	9	3.0		4-6	2	0.7
	6-9	3	1.0		6-9		
	10-	1	0.3		10-	2	0.7

(2.7%), 6-9회는 3명 (1.0%), 10회 이상 3명(1.0%)순이었다.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없다가 254명 (84.9%), 1-3회는 32명(10.7%), 4-6회는 9명(3.0%), 6-9회는 없으며, 10회 이상은 1명(0.3%)순이었다. ‘호흡기계 질환’의 경우 없다는 247명(82.6%), 1-3회는 35명(11.7%), 4-6회는 7명(2.3%), 6-9회는 7명 (2.3%), 10회 이상은 3명(0.3%)순이었다. ‘체질상담’의 경우는 없다가 368명(89.6%), 1-3회는 27명 (9.0%), 4-6회는 3명(1.0%), 6-9회는 1명(0.3%)으로 나타났다.

4. 한방의료의 치료기술 인식

연구대상자의 한방의료기관 치료기술 인식정도는 <Table 4>와 같다. ‘한방의료기관에서 가장 많이 받는 시술’은 침 130명(44.8%), 한약 87명(30.0%), 부항 6명(2.1%), 물리기기 5명(1.7%), 뜸 4명(1.4%),

추나 1명(0.3%), 없음은 47명(16.2%)이었다.

‘한방의료기관에서 가장 신뢰가 가는 치료기술’은 침 143명(49.0%), 한약이 65명(22.3%), 없음이 53명(18.2%), 부항, 물리기기, 기타는 각각 7명씩 (2.4%), 뜸 5명(1.7%), 기공이 3명(1.0%), 추나 2명 (0.7%)순이었다.

‘한약을 복용하는 이유’는 ‘체질 맞춤형 처방’이 178명(59.6%), ‘효과가 좋아서’는 39명(13.0%), ‘부작용이 적음’은 29명(9.7%), ‘가격이 적당함’은 6명 (2.0%), 기타는 47명(15.7%), 으로 나타났다.

‘한약을 기피하는 이유’는 ‘비싼 가격’이 137명 (46.0%), ‘맛과 제형이 먹기 어려움’이 64명(21.5%), 기타는 48명(16.1%), ‘부작용’이 20명(6.7%), 한약, 중금속 등 위생문제와 대체제를 복용이 각각 12명 으로 (4.0%), 간장에 부담은 5명(1.7%)순이었다.

‘한방물리요법을 받는다면 이유’는 ‘효과가 좋다’가 146명(48.9%), ‘치료에 대한 믿음’이 52명

Table 4. Perception Degree about Korean Medical Treatment Technology N=299

Variables		n (%)	Variables		n (%)
frequent treatment	herb	87 30.0	reason for avoiding Korean medicine	side effect	20 6.7
	acupuncture	130 44.8		insanitary herb	12 4.0
	moxa	4 1.4		taste and dosage	
	cupping	6 2.1		forms of Korean medicine	64 21.5
	chiropractic	1 0.3		high price	137 46.0
	Qigong	3 1.0		liver damage	5 1.7
	physical therapy	5 1.7		take functional food	12 4.0
	none	47 16.2		etc.	48 16.1
	etc.	10 3.4			
reliable treatment	herb	65 22.3	reason for receiving Korean p.t	good effect	146 48.9
	acupuncture	143 49.0		reasonable price	30 10.0
	moxa	5 1.7		confidence	52 17.4
	cupping	7 2.4		etc.	71 23.7
	chiropractic	2 0.7	reason for avoiding Korean p.t	low effect	43 14.4
	Qigong	3 1.0		fear of pain during treatment	148 49.5
	physical therapy	7 2.4		insanitary	26 8.7
	none	53 18.2		etc.	82 27.4
	etc.	7 2.4			
reason for taking Korean medicine	less side effect	29 9.7	acupuncture	general acupuncture	142 47.5
	reasonable price	6 2.0		pharmacopuncture	52 17.4
	good effects	39 13.0		Bee Venom	9 3.0
	prescriptions tailored to constitutions	178 59.6		laser acupuncture	29 9.7
	etc.	47 15.7		magnetic acupuncture	5 1.7
			etc.	62 20.7	

(17.4%), '가격이 적당'이 30명(10.0%), 기타 71명(23.7%)으로 나타났다.

'한방물리요법을 기피하는 이유'는 '치료시 통증에 대한 두려움'이 148명(49.5%), '효과가 적다'는 43명(14.4%), '비위생적이다'는 26명(8.7%), 기타 82명(27.4%)이었다.

'침 치료에서 효과가 좋고 신뢰하는 침'은 '일반호침' 142명(47.5%), '약침' 52명(17.4%), '레이저 침' 29명(9.7%), '봉침' 9명(3.0%), '자석침'은 5명(1.7%) 순이었다.

5. 한방의료 관련 정보에 대한 인식

연구대상자의 한방의료 관련 정보에 대한 인식정

도는 <Table 5>와 같다. '교통사고 발생시 자동차 보험이 한의원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안다'는 17명(5.7%), 모른다는 282명(94.3%)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발생시 한방물리요법, 탕약도 보험처리가 된다는 것을 안다'는 14명(4.7%), 모른다는 285명(95.3%)로 나타났다.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한약이 보건복지가족부 허가규격품이라는 것을 안다'는 58명(19.4%), 모른다는 241명(80.6%)로 나타났다.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침이 일회용이라는 것을 안다'는 137명(45.8%), 모른다는 162명(54.1%)으로 나타났다. '정맥으로 주입하는 산삼약침을 알고 있다'는 13명(4.3%), 모른다는 286명(95.7%)로 나타났다. '침으로 하는 성형기술에 대해 알고 있다'는 123명(41.1%), 모른다는 176명(58.8%)로 나타났다.

Table 5. Perception Degree about korean Medical Information N=299

Variables		n	(%)
motor insurance	know	17	5.7
	do not know	282	94.3
insurance coverage	know	14	4.7
	do not know	285	95.3
standardized herb	know	58	19.4
	do not know	241	80.6
disposable needles	know	137	45.8
	do not know	162	54.1
Wild Ginseng Pharmacopuncture	know	13	4.3
	do not know	286	95.7
acupuncture plastic surgery	know	123	41.1
	do not know	176	58.8

Table 6. Necessary Items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Medicine N=299

Variables	n	(%)
accurate and persuasive diagnostic methods	73	24.4
treatment technology with fast and high effects	145	48.5
convenient method for taking korean medicine	11	3.7
kindly and attentive service	8	2.7
painless acupuncture and moxa without scarring	26	8.7
public relations of korean medicinal treatment technology	33	11.0
etc.	3	1.0

6. 한의학의 발전 방안에 대한 견해

연구대상자의 한의학의 발전 방안에 대한 견해는 <Table 6>와 같다. 한의학 발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에 대해 ‘빠르고 높은 효과의 치료기술’이 145명(48.5%), ‘정확하고 설득력 있는 진단방법’은 73명(24.4%), ‘한의치료기술의 대국민 홍보’는 33명(11.0%), ‘통증 없는 침과 흔적 없는 뜸 치료법’은 26명(8.7%), ‘편리한 한약 복용 기술과 방법’은 11명(3.7%), ‘친절하고 세심한 안내 서비스’는 8명(2.7%), 기타 3명(1.0%)순이었다.

IV. 고찰

향후 한방의료기관의 점유율의 상승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한방의료 선호 연령대인 노년층은 물론, 전통적인 한방의료 비선호 연령대인 20대의 한방치료에 대한 인식과 욕구 조사가 더욱 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조사는 대학생들의 한의학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중 한방의료기관의 비율은 2%였다. 최⁸⁾의 연구에서 2주간 외래 한방 병의원 이용율은 4.4%였으며, 박¹⁾의 연구에서는 한방의료기관을 가장 먼저 찾는 일반주민은 3.2%였다. 최의 연구는 2주간의 외래 한방의료기관

의 이용율을 조사한 것이고, 박의 연구는 가장 먼저 찾은 보건의료기관의 비율이며, 본 연구는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러함에도 전체적으로 기존의 타 조사에 비해 질병발생시 찾는 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한방의료기관의 비율은 줄었다. 박과 최의 연구가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의 조사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시대적 흐름에 따른 한방의료기관의 선호도가 줄었다고도 볼 수도 있고, 이번 조사가 20대 대학생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연령적 특성에 의한 선호도가 차이가 날 수도 있을 것이다.

한방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항목에서는 '한의사의 의료기술'이 39.0%, 한방의료기관의 인지도가 20.5%, '위치와 소요거리'가 12.4%로 나타났다. 조⁹⁾가 조사한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한 이유에 대해 '치료효과가 좋을 것 같아서'가 40.8%, '용하다는 소문'이 19.6%, '이용이 편리해서' 14.1%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한방의료기관의 선택이유로 한의사의 의료기술을 다수가 선택하였으나 환자가 의료기술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근거는 없기 때문에, 환자의 주관적인 인식으로 의료기술을 평가하게 된다. 이처럼 주관적 의료기술에 대한 인식이 한방의료기관 선택 시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추후 환자들이 한의사의 의료기술을 평가하는 주관적 인식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더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진료만족도는 보통이 62.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조금 만족이 26.8%, 매우 만족이 4.3%로 만족한 경우가 31.1%로 불만족한 6%보다 높았다. 윤¹⁰⁾은 한방의료 이용자들의 한방의료 만족도에서 이용자의 81.9%가 만족(매우만족 22.0%, 만족 59.9%)한다고 하였다. 윤의 연구보다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것은 본 연구가 한방의료를 이용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함으로 나타나는 차이일 것으로 생각된다. 젊은 연령대의 학

생들에게도 한방진료에 대한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후 경영전략을 수립할 때 긍정적 요소로 평가될 만 하다고 보인다.

진료 불만족 이유로는 높은 가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조⁹⁾와 윤¹⁰⁾의 연구에서도 고가의 진료비가 주요 불만족 원인 중 하나로 나타나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아직도 한방의료기관은 양방의료기관에 비해 치료비가 높다는 막연한 생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약 등 고가의 비급여치료를 하는 곳이란 인식이 아직 높은 것으로 보이며, 한방의료기관에서도 보험이 되는 침구치료 등 저렴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박¹¹⁾은 한방의료기관 이용 횟수가 근골격계 질환, 보약, 순환기계 질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고, 이¹¹⁾의 조사에서는 근골격계, 소화기계, 감염성 질환, 순환기계 질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한방의료기관 방문 횟수가 전체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왔으며, 그 중에서 보약과 소화기계 질환의 치료를 위해 한방의료기관을 찾은 횟수가 다른 질환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높았다. 한방의료가 좀 더 다양한 방면의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공감대가 젊은 층에는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한방의료가 양방의료에 비해 우수한 치료효과를 내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지만, 그 연구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대국민 홍보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윤¹⁰⁾은 한방진료 시 치료법으로 침 치료, 물리요법, 탕약, 뜸, 부항 순으로 많이 사용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침과 한약이 한방의료기관에서 많이 받는 시술이며 신뢰가 가는 치료기술로 인식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젊은 층에서는 한방의료기관에서 침과 한약이 가장 핵심적인 치료 기술로 여겨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긍정적인 면으로는 한의학의 가장 정통적인 치료법을 선호하고 신뢰하

는 치료술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지만, 부정적인 면으로는 다른 한방 치료기술에 대해서 젊은 층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이¹²⁾의 연구에서는 82.6%의 응답자가 한약이 치료의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79.1%의 응답자가 앞으로도 치료제 또는 보약으로서 한약을 복용하겠다는 높은 복용의도를 보였다. 또한 송¹³⁾은 한약복용 의도가 73.1%로 높게 나타났으며, 소비자들은 보약의 경우 체력 보강 효과, 신체 기능 보강 효과를 높게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한약을 선호하고 복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¹⁴⁾. 본 연구에서 한약을 복용하는 이유로 '체질 맞춤형 처방'이 59.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한약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개개인별 체질에 맞춤형 처방을 한다는 것으로 평가되며, 이후 건강기능식품과의 차별성을 둘 때 집중적으로 부각시켜야 할 부분으로 생각된다. 이에 비해 한약을 기피하는 이유에서는 '비싼 가격'이 46.0%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아직도 한약은 고가제라는 인식이 강한 것 같다. 조⁹⁾는 한방의료의 가장 큰 문제점을 지적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46.7%가 '건강보험의 혜택이 낮다'라는 점을 지적하였다고 하였으며, 이는 한방의료에서는 첩약을 중심으로 건강보험의 급여에서 제외되어 있는 항목이 많아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하였다. 한약가격의 적절한 수준과 첩약의보에 대한 연구가 이후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각 한의원마다 개별적으로 정해진 한약 가격 또한 일정한 수준에서 통일을 이루어 전체적인 가격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 또한 한약의 맛과 제형이 먹기에 어렵다고도 많이 답했다. 복용이 편한 제형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지금도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15,16)}, 좀 더 집중적인 연구를 통해 적합한 제형을 찾아내는 것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방물리요법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치료효과에 대한 기대가 많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에 한방물리요법 시 통증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증에 대한 두려움을 덜 수 있는 새로운 물리요법의 개발이나, 침의 통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방의료기관에서 자동차 보험이 가능하다는 것을 모른다는 답변이 94.3%, 탕약도 자동차보험이 된다는 것을 모른다는 답변이 95.3%로 나타났다. 이¹⁷⁾의 연구에서 한방 자동차보험 인지 여부에서 66.6%가 모른다고 답했으며, 한방 자동차보험 내 한약 포함 인지 여부에서는 77.3%가 모른다고 답했다. 대학생들이 전체연령대 평균에 비해 한방의료기관에서 자동차보험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동차 보험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18,19)} 한의사협회가 많은 홍보활동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약과 침의 안전성과 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많은 노력을 통해 일회용 침을 쓴다는 인식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과반 이상의 대학생이 침이 일회용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2012년 4월 1일 부터는 모든 한방의료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가 허가한 한약 규격품 외에는 사용할 수 없게 법제화 되었다²⁰⁾. 하지만 한약에 식품용과 의료용이 있다는 것을 아는 이가 거의 없었다. 이러한 인식의 한계는 한약과 침의 안전성과 위생에 대한 우려로 나타날 것이며, 결국은 한방의료기관의 방문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 산삼약침액을 정맥에 직접 주입하는 새로운 약침시술법에 대한 연구와 시술이 늘어나고 있다^{21,22)}. 그러나 산삼약침에 대한 알고 있다라는 답변은 4.3%로 인식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침으로 하는 성형기술에 대해 알고 있다'는

41.1%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최근 성형침이 언론에 노출이 많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것으로 보이며, 이 점은 다른 한의학 홍보의 성과를 올리기 위한 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본 연구 대상자들인 대학생들은 한의학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빠르고 높은 효과의 치료기술’(48.5%)과 ‘정확하고 설득력 있는 진단방법’(24.4%)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내용처럼 통해 대학생들의 한방 의료 이용에 대한 전반적 인식을 파악한 결과, 대학생들의 한방 의료 이용에 대한 전반적 인식수준이 낮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한방 보건 의료 정책 수립 및 한방의료기관 경영전략의 기초자료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부산광역시 소재 D대학의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므로 특정지역의 특성을 지닌 집단으로 전체 대학생을 대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둘째,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므로, 20대 전체를 대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셋째, 실제 한방의료기관 방문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많아, 실제 경험에 의한 경향성이라기보다, 막연한 추론에 의한 경향성일 수 있다. 넷째, 대학생들의 인식정도를 단순 빈도와 백분율로만 분석하여, 인식내용은 파악할 수 있었지만, 그러한 인식을 형성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향후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한 연구가 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V. 결론

국민들 중 특히 20대의 한방의료 이용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앞으로의 한방보건의료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2012년 3월 5일부터 6월 1일까지 부산광역시 소재 D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지 320부 중 분석에 불충분한 21부를 제외한 299(93.4%)부를 최종 분석한 결과 결론은 다음과 같았다.

1. 몸이 아픈 경우 한방 병·의원을 주로 이용하는 학생은 6명(2.0%)이었으며, ‘한방의료기관을 선택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한의학의 의료기술’이 136명(39.0%)이었다. 한방진료에 만족한 경우가 93명(31.1%)로 불만족한 18명(6%)보다 높았다. ‘한방의료기관 진료 시 불만족 이유’는 ‘높은가격’이 97명(32.5%)으로 가장 높았다.
2. 한방의료기관의 이용현황은 전체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왔으며, 그 중에서 보약과 소화기계 질환의 치료를 위해 한방의료기관을 찾은 횟수가 다른 질환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높았다.
3. 한방의료기관에서 가장 많이 받는 시술은 침 130명(44.8%), 한약 87명(30.0%)이었으며, 한방의료기관에서 가장 신뢰가 가는 치료기술은 침 143명(49.0%), 한약이 65명(22.3%)이었다. 한약 복용 이유는 ‘체질 맞춤형 처방’이 178명(59.6%), ‘효과가 좋아서’는 39명(13.0%)이었고, 한약 기피 이유는 ‘비싼 가격’이 137명(46.0%), ‘맛과 제형이 먹기 어려움’이 64명(21.5%)이었다. 한방물리요법을 받는 이유로는 ‘효과가 좋다’가 146명(48.9%), ‘치료에 대한 믿음’이 52명(17.4%)이었고, 한방물리요법을 기피하는 이유는 ‘치료시 통증에 대한 두려움’이 148명(49.5%), ‘효과가 적다’는 43명(14.4%)이었다.
4. ‘교통사고 발생시 자동차 보험이 한의원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안다는 17명(5.7%), 교통사고 발생시 한방물리요법, 탕약도 보험처리가 된다는 것을 안다는 14명(4.7%)이었다.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한약이 보건복지가족부 허가규격품이라는 것을 안다’는 58명(19.4%)으로 나타났고,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침이 일회용이라는 것을 안다’는 137명(45.8%)이었다.

‘정맥으로 주입하는 산삼약침을 알고 있다’는 13명(4.3%), ‘침으로 하는 성형기술에 대해 알고 있다’는 123명(41.1%)이어서 전반적으로 한방의료와 관련된 정보의 인식정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 연구대상자의 한의학의 발전 방안에 대한 견해 설문결과는 한의학 발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에 대해 ‘빠르고 높은 효과의 치료기술’이 145명(48.5%), ‘정확하고 설득력 있는 진단방법’은 73명(24.4%), ‘한의치료기술의 대국민 홍보’는 33명(11.0%) 순으로 높았다.

본 연구를 통해 대학생들의 한방 의료 이용에 대한 전반적 인식수준이 낮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향후 대학생들의 한방 의료에 대한 전반적 인식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추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參 考 文 獻

- 박성순, 남철현. 한국인의 한방의료이용에 대한 인식과 행태 요인 분석. 대한보건협회학술지. 1999; 25: 34-50.
- 황중서. 보완대체의학의 세계화와 한의학의 발전 방안. 大田大學校 韓醫學研究所 論文集. 2012; 20: 141-153.
- 박중원, 최동춘, 강도원, 최용길. 의료서비스 마케팅. 보문각, 2009, 42-46.
- 김영배. 병원전략경영. 공주대학교출판부, 2010, 3-13.

- 장수용, 박기수. 병원경영과 병원서비스 연구보고서. 삼성경제연구소. 2006.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주요통계. 2011.
- 식품의약품안전청. ‘11년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분석결과 발표(보도자료). 2012. 5. 9.
- 최정수, 남정주, 김태정, 계훈방. 한국인의 건강과 의료이용실태-1995년도 국민건강 및 보건의식행태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 조재국. 한방의료 이용자의 한방의료에 대한 태도 및 시장개방에 대한 인식도 분석. 보건복지포럼. 2004; 98: 76-93.
- 윤강재. 우리나라 국민의 한방의료 이용실태와 인식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140: 2-8.
- 이규식, 조경숙. 한방의료 이용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전국한의원 이용자를 중심으로-. 보건행정학회지. 1999; 9: 120-139.
- 이용일, 변정환, 남철현. 도시지역주민의 한약복용실태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한국보건협회지. 1991; 17: 32-49.
- 송화숙, 오세영. 도시 중년 남성의 건강식품 섭취 경험과 의도에 관한 연구.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2000; 5: 193-200.
- 이은영, 정순희, 문은숙. 한약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한약 복용 의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 2007년 창립 30주년 기념학술대회. 2007: 136-146.
- 임현주, 정인철. 가감신기환 제형변화가 염증반응 사이토카인과 기억력감퇴에 미치는 영향.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2008; 19: 85-100.
- 최현정, 방나영, 송보완, 김남재, 류봉하. 한약제형 선호도에 관한 설문조사. 경희의학. 2004; 20: 356-367.
- 이영준, 백영두. 대구지역 한방자동차보험 실태조사. 동서의학. 2010; 35: 99-109.
- 유형식, 박태섭. 자동차보험 환자와 건강보험

- 환자의 의료 이용 양상 분석. 대한예방의학회지. 2007; 11: 175-188.
19. 박서영, 이윤규, 김재수, 임성철, 이봉효, 정태영, 하일도, 한상원, 이경민. 교통사고 환자 544례를 통한 한방자동차보험의 실태에 관한 조사. 대한침구학회지. 2009; 26: 1-10.
20. 보건복지가족부 보도자료. 2012. 3. 27.
21. 김영진, 이준무, 이은. 산양산삼약침의 면역조절 기능. 경락경혈학회지. 2010; 27: 31-47
22. 권기록. 정맥 주입용 산삼약침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임상적 연구. 대한약침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04; 7: 15-26.